

## 1호선 검단연장선, 2025년 개통 '순항'

(인천도시철도)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시민들과 약속한 2025년 개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일 오전 10시께 인천도시철도(지하철) 1호선 검단연장선 공사 현장. 지하 17m 아래 지하철공사 현장은 마치 형태의 높은 천장과 벽에 방수작업이 한창이다. 근로자들은 기증기를 타고 천장과 벽에 붙여 놓은 방수포를 콘크리트로 덮기 위해 철근을 덧씌우기 위한 용접 작업을 하고 있다. 이는 외부 습기가 흘러드는 것을 막아주는 것은 물론, 지하철 통로로의 소음과 충격을 막아준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인천 1호선 검단연장선의 4공구(103점

**유정복 시장, 건설 현장 방문  
공정 66.65%... 안전 관리 점검  
"부실 시공 없도록 철저히 예방"**

거장)에서 3공구(102점거장)로 이동하며 건설 현장의 종합적인 안전 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했다. 유 시장은 각종 철조 구조물과 기자재들을 직접 만져보며 안전성 등을 확인했다. 유 시장은 "공사 과정에서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해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우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지상부 현장에서도 습기가 침투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 시장은 근로자들의 안전에 대한 사항들도 꼼꼼하게 살펴봤다. 최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잘 지켜지는지 등이다. 유 시장은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 생활화가 꼭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인천 1호선 검단연장선은 계약



유정복 인천시장이 7일 오전 서구 원당동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4공구 103점 거장 지하터널 공사현장을 찾아 안전과 공사 진행 상황 등을 살펴보고 있다. 장용준기자

역~검단신도시를 연결하는 총 연장 6.825km 구간에 3개의 정거장이 들어선다. 현재 공사는 본선터널 5.17km 중 4.44km의 굴착을 마무리하는 등 공정이 66.65%다.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올해 전기공사 및 건축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오는 2025년 5월 21일 준공이 목표다. 유 시장은 "지하철이 차질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해 검단신도시 일대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시장은 이날 서울 지하철 7호선의 청라연장선의 공사 현장을 방문, 선제적인 안전점검과 차질 없는 공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 마련 등을 지시했다. 서구 석남동에서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까지 10.767km 구간을 잇는 서울 7호선 청라연장선은 현재 정거장 7곳을 만들기 위한 굴착 공사를 하고 있으며, 공정은 9.66%다. 오는 2027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유빈기자

## 발전소 주변 지원 확대 서구·영흥 '민민 갈등'

인천 영흥화력발전소 주변 지역만 지원해 온 '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를 서구 지역 등으로 넓히는 개편을 놓고 영흥지역 주민과 서구 주민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이 같은 '민민(民民)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원도심 특별회계에서 발전소 주변 지원과 섬지역 지원을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인천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오는 9일 열리는 제288회 정례회의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이순학 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5)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논의한다.

이 개정안은 종전 '발전소 도서개발계정'을 '발전소 주변개발계정'으로 바꾸고, 종전 '석탄·LNG 등을 포함하는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이 이뤄지면 현재 발전소가 있는 섬, 즉 영흥도에서만 이뤄지던 지원이 중·영·남·동·서구 등 발전소가 있는 육지까지 확대할 수 있다.

현재시는 원도심 특별회계로 들어온 지역자원시설세 중 용진군의 징수액 약 80억원 중 65%를 용진군에 조정교부금으로 주고, 나머지 35%도 영흥지역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비로 주고 있다. 반면 서구를 비롯해 남·동·중·영·수구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원도심 특별회계 개정 조례 쟁점  
현 지역자원시설세, 섬지역만 적용  
가결 시 육지까지 지원 범위 커져  
市 "형평성 문제... 폭 넓게 검토"**

징수하는데도, 조정교부금은 물론 지원사업에서도 빠져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영흥 주민들은 집단 반발하고 있다. 석탄을 이용한 영흥화력발전소로 인한 영흥지역의 환경피해가 더 극심한 만큼, 액화천연가스(LNG)를 쓰는 화력발전소 주변까지 지원하면 영흥지역 지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 시의원은 "용진군은 재정자립도가 8%로 타 군·구보다 낮은 데다, 원도심 및

섬 지역으로 더욱 지원이 필요한 곳"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서구 주민들은 LNG도 화석연료인 만큼 유해물질 발생은 당연해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구 주민들은 이날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구엔 화력발전소가 무려 4곳이나 있다"며 "이런데도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하나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지역 안팎에선 시가 이 같은 지원금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발전소에서 걷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당초 특별회계를 '발전소 주변 지역 개발'로 했어야 했는데, 이를 섬지역까지 묶으면서 이 같은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현재 시의회에서 논의가 이뤄지는 만큼, 회계 분리 등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폭 넓게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지혜기자

## 나라 지켰지만... 돌아온 건 '평생 고통'



잊지 않겠습니다 '호국영웅'

"먹는 약이 늘어간다고 꾸념하며 혼자 살던 형님이 어느 날 보니 없어. 당장이라도 나라가 당신을 찾으면 목숨 바치겠다던 노인네가 그렇게 외롭게 간 거지."

'월남전 참전용사' 조광현씨(76)는 전우(戰友) '박씨 형님'을 회상했다. 이들은 20대 초반 해병대 청룡부대 소속으로 베트남 전장에서 살아 남았다.

조씨는 "술한 생사의 고비를 이겨내고 귀국했는데 뒤늦게 들은 박씨 형님의 사정이 녹록지 않았다"고 입을 뗐다. 박씨는 전쟁 여파로 각종 질병과 질환을 얻은 데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취업도, 결혼도 못했다고 했다. 심지어 부모마저 어린 나이에

여의었던 만큼, '형님'은 외로움과 우울증에 시달리다 결국 15년 전 쓸쓸히 홀로 눈을 감았다고 전했다.

조씨는 "내 삶도 같다"고 말했다. 그 역시 고엽제 후유증과 각종 후천적 장애 등으로 고단한 삶을 보냈다.

그는 "독거 유공자를 돕기 위한 지원 서비스가 있는지도 모른 채 혼자 초라한 마지막을 맞는 이들

**인천 거주 독거 국가유공자 4천792명  
전쟁 후유증·경제적 어려움 비일비재  
의료서비스 등 현실적 지원 '절실'  
정부·지자체, 적극적 제도 마련해야**

이 지금도 주변에 많다"며 "평생 남은 건 집 현관문에 '국가유공자'라는 명패뿐"이라고 읊조렸다.

조씨와 같은 '독거 국가유공자'를 돕기 위해 정부가 각종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의료 서비스 같은 현실적인 지원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여기에 국가유공자였지만 숨진 후 '무연고자'로 처리되는 안타까운 상황도 있다.

7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독거 국가유공자는 총 11만688명으로, 인천에 4천792명(4.32%)이 살고 있다. 경기에는 2만2천282명(20.13%)이 있지만 일반적 통계만 파악되는 수준이다.

정부는 아직 이들이 처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지방자치단체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혼자 남은 국가유공자가 쓸쓸히 생을 마감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용환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대표는 "정부, 지자체가 독거 국가유공자를 위한 적극적 의지가 보여주는 세심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혜·황이현기자  
관련기사 3면

벌레 왕령... 쓰레기장 된 영종중제도시 7면

디지털 세상, 여기서도  
너와 나는 똑같이 소중하니까

디지털 시민교육으로  
지켜 나갑니다

자율 균형 미래

경기도교육청